

# F1005 팀챌린지자산배분E형(하나UBS자산운용)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E형(하나UBS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에이비엘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팀챌린지자산배분E형(하나UBS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661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8.03
운용기간	2018.04.01 ~ 2018.06.30	존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과,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팀챌린지자산 배분E형 (하나UBS 자산운용)	자산 총액 (A)	6,139	5,892	-4.02
	부채 총액 (B)	5	5	-4.70
	순자산총액 (C=A-B)	6,134	5,887	-4.0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6,204	6,106	-1.58
	기준가격 (E=C/D*1000)	988.71	964.15	-2.48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2분기 동안 선진증시는, 특히 미국의 경우 1분기 변동성 국면에서 벗어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반면, 이머징 증시는 분기 내내 약세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선진국 내에서는 지역별 경기와 물가흐름의 차별화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은 경기선행지수 고점을 높이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존 증시의 경우, 유럽 기업 이익 추경치가 약세를 보이고 경기지표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자금유출, 무역마찰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탈리아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선진국 내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분기 기간 동안 이머징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 그리고 미달러 동반 강세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중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맞대응한데 이어 미국에서 추가로 4000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중간 무역마찰이 심화되어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격화되었습니다. 섹터별로는 유가 상승에 힘입은 에너지와 IT 섹터가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무역마찰과 경기 약진에 따른 자본재 업종과 장 단기 금리차 축소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금융 섹터가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금리는 유가 상승과 기타 글로벌 대비 강세를 보인 미국의 경기 모멘텀에 미국채 단기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미국 경기채는 5월 중 10년물 금리가 3.1%를 넘어선 후,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미중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며 안전 자산 선호도 강화로 반락하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는 연초 60bp에서 6월말 30bp 대로 축소되었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미국 주식시장은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미국 경기의 견재함과 재정확정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단기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확인한 가운데, 글로벌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투자심

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머징 시장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지 않고 7월에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되면서 양호한 미국 기업 펀더멘털의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주식의 비중 확대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유럽 주식의 경우, 작년 대비 약화 기조를 보였던 경기 모멘텀의 회복세가 아직 확인 되어야 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리스크는 일단락 되었지만, 난민정책으로 인한 독일 대연정 내 갈등이 심화되며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유럽 주식의 비중을 축소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올해 초 엔화 강세로 위축되었던 일본 기업이익 전망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우려로 글로벌 설비 투자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비중은 중립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머징의 경우 중국증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및 장기화 우려, 대내적으로 5월 실물경제지표가 예상치 및 전월치를 하회하며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며 관광심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예상보다 매끄러운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완화적인 ECB(유럽중앙은행)의 영향으로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달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익은 여전히 견조한 반면 최근 가격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며, 전반적인 이머징 주식시장의 비중은 중립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발효 등 미중 무역갈등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주요국 금리는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기 부담으로 장기 금리를 더 하락시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점진적인 축소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비중은 중립 수준을, 자본비용과 원자재 상승에 따른 기업 마진 압박 및 높은 부채 비율 등으로 크레디트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가 예상되어 회사채와 하이일드 채권 비중은 축소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하나UBS자산운용)	-2.48	-3.66	-1.45	0.91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하나UBS자산운용)	0.91	9.20	-	-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9	0	0	-74	8	0	0	0	1	-13	-70
당기	27	0	0	42	-215	0	0	0	1	-6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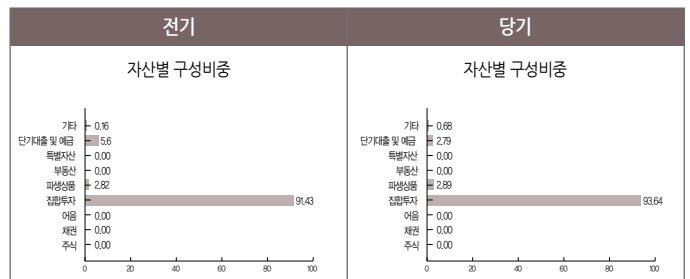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USD (1114.50)	0 (0.00)	0 (0.00)	0 (0.00)	4,203 (71.34)	0 (0.00)	0 (0.00)	0 (0.00)	0 (0.00)	15 (0.26)	0 (0.00)	4,218 (71.59)
KRW (1.00)	0 (0.00)	0 (0.00)	0 (0.00)	1,314 (22.30)	170 (2.89)	0 (0.00)	0 (0.00)	0 (0.00)	149 (2.53)	40 (0.68)	1,674 (28.41)
합계	0	0	0	5,517	170	0	0	0	164	40	5,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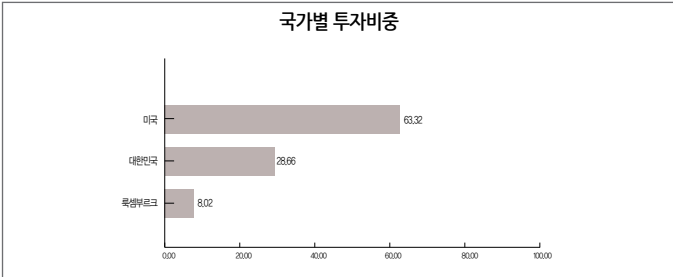
\* (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미국	63.32	6		
2	대한민국	28.66	7		
3	룩셈부르크	8.02	8		
4			9		
5			10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 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li> <li>-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li> <li>-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li> <li>-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li> </ul>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18.06.30)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18.04.01 ~ 18.06.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18.04.01 ~ 18.06.30)
-	95.26%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미국달러 F 201807	매도	361	4,02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파생상품 미국달러 F 201807	68.29	6	집합투자증권 동양하이블러스채권자 1(채권)	7.16
2	집합투자증권 SPDR TRUST SERIES 1	14.26	7	집합투자증권 ISHARES MSCI EAFE FD	7.06
3	집합투자증권 ISHARES MSCI EMERGING MKT ETF	11.78	8	집합투자증권 ISHARES IBOXX INVESTMENT GRA	5.40
4	집합투자증권 KODEX 200	11.36	9	집합투자증권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2-AF	3.78
5	집합투자증권 UBS (Lux) Key Selection SICAV - Dynamic	8.02	10	집합투자증권 ISHARES EDGE MSCI USA VALUE	3.46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SPDR TRUST SERIES 1	수익증권	SPDR S&P 500 ETF Trust	799	840	미국	USD	14.26
ISHARES MSCI EMERGING MKT ETF	수익증권	ISHARES EDGE MSCI MINVOL EMERGING MARKE	733	694	미국	USD	11.78
KODEX 200	수익증권	상장자산운용	729	669	대한민국	KRW	11.36
UBS (Lux) Key Selection SICAV - Dynamic	수익증권	UBS Lux Key Selection SICAV - Dynamic	467	473	룩셈부르크	USD	8.02
동양하이블러스채권자 1(채권)	채권형	동양자산운용	408	422	대한민국	KRW	7.16
ISHARES MSCI EAFE FD	수익증권	ISHARES MSCI EAFE FD	421	416	미국	USD	7.06
ISHARES IBOXX INVESTMENT GRA	수익증권	ISHARES IBOXX Investment Grade Corporat	324	318	미국	USD	5.40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2-AF	채권형	교보투자자산운용	219	223	대한민국	KRW	3.78
ISHARES EDGE MSCI USA VALUE	수익증권	ISHares Edge MSCI USD Value Factor ETF	201	204	미국	USD	3.4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사장	51	76	2,265,935	0		2111000044
차인식	차장	50	76	2,265,935	0		2118000653
이하경	과장	34	76	2,265,935	0		211800065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시스템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1.01.15 ~ 현재	이현구
2018.05.29 ~ 현재	차인식
2018.05.29 ~ 현재	이하경
2018.01.15 ~ 2018.05.28	정우진
2009.02.04 ~ 2018.01.12	남정은
2012.11.05 ~ 2016.04.22	오인철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4	0.06	4	0.06	
판매회사	9	0.15	9	0.1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4	0.22	13	0.22	
기타비용**	1	0.01	0	0.01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2	0.04	2	0.04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2	0.04	2	0.04
증거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함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9059	0.134	1.0399
당기	0.9046	0.1297	1.0343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